



그림= 위즈덤하우스 제공

진실이라 믿었던 '성공법칙' 뒤집기

클린턴 등 세계 정상에 오른 100인의 상식을 깨뜨리는 27가지 성공비결

평범했던 그 친구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토마스 A. 슈웨이크 지음
서현정 옮김 | 위즈덤하우스 | 1만원

이따금씩 동문회에 가보면 참석자들을 놀라게 하는 친구가 있다. 학창시절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게 조용하던 친구가, 혹은 뛰어난 공부를 잘 하지도 별다른 재주가 있지도 않던 친구가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위의 시선을 끈다. 지금은 대성한 영화배우 설경구도 평소 내성적인 성격 탓에 대학시절에는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보면 '크게 될 놈은 어릴 때부터 싸수가 보인다'는 말은 현실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듯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 법칙에는 오해가 많다. 변호사이자 성공학 이론가인 토마스 슈웨이크는 자신의 저서인 <평범했던 그 친구는 어떻게 성공했을까>에 상식을 뒤집는 27가지 성공비결을 담았다.

설문과 통계자료를 통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CEO 짐 파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그레이 상 수상 가수 웨일 크로 등 세계 정상에 오른 100인의 경력과 이미지·조직 관리 비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그래서 막연한 성공 욕구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책에 소개된 구체적인

성공 원칙과 노하우, 관리 비결 등 실현 가능한 대책들은 독자들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처음부터 뚜렷한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속설이다. 하지만 이 책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 100명 중 처음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은 5%에 불과하다고 한다. 목표에 집착하는 것이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 성공이 저절로 찾아온 경우가 많았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성공한다는 것도 오해다. 대부분 특출난 리더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냉정해진다. 자신과 가깝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자신과 별 관계는 없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게 되는 것이다. 카리스마 역시 성공비결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는 카

리스마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학력을 성공의 필수요소로 꼽는 사람 역시 25%에 불과했다. 그 대신 '용통성'과 '외모'를 성공의 필수요소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응답자의 각각 96%와 100%가 용통성과 외모를 성공의 필수요소라고 응답했다.

성공을 위해서는 운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적인 드림엔지니어인 지나 쇼크는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지랄(?) 맞게 운이 좋았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회란 말하는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97% 정도의 사람이 그냥 지나친다고 그들은 말했다.

저자는 또 성공에 마이너스가 될 요소를 플러스 요소로 만드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미지 관리 비결이라고 주장한다. 그 예로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이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과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대다수 사람이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오히려 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10분 정도 화를 낸다는 생산적인 해결책을 찾거나 차분한 목소리로 화가 난 이유를 이야기해서 상대를 설득 하는 등, 화를 내는 데도 전략적인 스타일이 필요하다는 그들의 노하우는 값이 새길만하다.

성공한 사람들의 조직 관리 비결 중 가장 인상적이며,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으로 저자는 회의 운영에 대한 비법을 꼽는다.

"회의는 평균 이상으로 하는데 매출은 평균 이하인 기업들이 너무 많다"는 CEO 톰 오닐의 말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회의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며 진행하는데 85% 정도의 사람들이 동의했다. 또한 1시간 이상이 넘는 회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회의 때마다 자각을 철저하게 금하게 하고 안전과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회의 시간과 횟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공한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이외에도 성공하기 위해 자기 PR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PR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의 창업자나 설립자이며 자신보다 '우리'를 내세우는 게 더 적합한 홍보 방법임을 강조한다. 이렇듯 이 책은 오랫동안 진실로 믿어온 성공의 속설들을 보기 좋게 뒤집는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자전거 여행 · 2 글 김훈 | 사진 이강빈 | 생각의 나무 | 1만원

소설가 김훈이 풍경을 몸에 담아 거울에 비추듯 세상을 마음에 새겼다. 그의 애마 '풍륜'과 함께 우리의 산하를 달린 두 번째 여행을 마치고 <자전거 여행 · 2>를 들고 온 것이다. 첫 번째 여행이 전국 일주였다면 이번엔 다녀온 곳들은 경기도 일대다. 북한 개풍군과 김포평야를 가르며 흐르는 조강을 출발해 일산을 거쳐 중부전선과 남양만에서 가평, 여주, 양주리를 돌아 수원과 안성으로 그의 여정은 이어지고 있다.

다가오는 시간과 사라지는 시간이 체인의 마디에서 헤어지면 서 구르는 풍륜의 바퀴 위에 몸을 얹은 채 우리의 강과 산을 거스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내주고 호흡하는 일이다. 그래서 김훈과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은 단지 여행지를 돌아보는 일만은 아니다.

"자전거를 저어서 나아갈 때 풍경이 흘러와 마음에 스민다. 스미는 풍경은 머무르지 않고 닦이고 스쳐서 불려가는데, 그때 풍경을 받아내는 것이 목인지 마음인지 구별되지 않는다."

'풍륜'에 몸 싣고 풍경속으로

김훈 따라 경기도 일대 누비며 자연에게 말걸기

김훈은 여행지에서 그 특유의 문장으로 풍경과 사물, 사람에게 말을 걸고 그것들을 자신의 몸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 그것은 마치 자전거의 바퀴가 길의 감촉을 폐달을 통해 허벅지의 빠근함을 통해 느끼는 것과 같다. 김훈의 여행기에서 만나는 것은 현실로 존재하는 풍경과 사물과 사람이며 그의 몸 안에서 문장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된 그것들이다.

그러나 그가 이번에 보여준 여행문은 그의 수사가 단순한 추상적인 비유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김훈의 문장은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이 풍경 혹은 사물을 만났을 때 빛어지는 사유의 집합체다. 우리는 그 사유에 종종 매혹되고 그 사유 안에서 종종 길을 잃는다. 그러나 김훈의 매혹이 사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 김훈의 문장은 더욱더 현실로 넓어지고 있다.

그의 현실 묘사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그의 묘사는 그 현실이 드러내고자 하는 자연과 사람, 혹은 사물의 숨겨진 말들을 팽팽한 긴장을 통해 드러내놓는다. 여행을 통해 그가 풍경에 다가가는 것은 수줍은 '짜사랑'이다.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는 말은 광막해서 그 권역과 넓이와 가장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의 말처럼 광막해 말을 걸 수 없는 자연에 겨우 말을 거는 모양을 하고 있다.

"풍경이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지만" 그는 풍경을 향해 수줍게 깔았이 말을 걸고 있다.

김훈의 <자전거 여행 · 2>에서 사유와 현실 묘사는 자전거의 두 바퀴가 연거푸 길을 지나듯 여유롭게 굴러간다. 사실 우리를 여행으로 이끄는 것도 그 두 가지 매혹이 아니겠는가. 가을엔 두 바퀴로 굴러볼 일이다.

■유철상 (프라이메이저 기자)

열대과일의 여왕 망고스틴
mangosteen
수입개시

망고스틴은 '열대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려집니다. 마늘처럼 생긴 과육은 향기가 있고 새콤달콤하여 열매 중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맛이 뛰어납니다. 망고스틴은 두리안을 드시고 난 후, 후식으로 드시면 두리안의 특이한 향이 희석됩니다.

가격 : 1박스 4.5KG(45개~50개들어) 90,000 원

망고스틴을 드시는 방법
과일의 종간지점을 손끝으로 눌러서 틀리신 다음, 약간 비틀면 잘 따집니다.
지주색 껍질 안에 눈처럼 새하얀 과육이 숨어 있습니다.

판매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E-Mail : durian1357@hanmail.net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예금주 조영숙)

과일의 왕 두리안
부침남도 즐겨드셨습니까
강장효과가 뛰어난 과일의 왕 DURIAN

www.durianshop.com

가격 : 3kg 35,000원
6kg 60,000원
12kg 120,000원

두리안과 망고스틴은 가장 싱싱하고 당도가 높은 시기에 수확하여 영하 40도에서 급냉보관하여 수입하므로 원산지맛 그대로 안방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관상학특강반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떡!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사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중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문답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능인정사

주지법경
사부대중 일동

■ 서울 광진구 지양 3동 227-217호
전화 02-455-1080
팩스 02-456-1335